

한은 '매파' 기운 솔솔... 이달 기준금리 인상 '만지작'

(통화긴축)

금통위원 7명 중 4명 '금리인상' 총재 등 절반 이상 '매파적 입장' "통화정책 완화 기초 축소할 시기"

한국은행의 '매파(통화긴축 선호)' 색채가 드러나고 있다. 금융시장에선 한은의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의지가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특히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도달했거나 근접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금리 인상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물론 정부는 경기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만큼 금리인상 시기가 늦춰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1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개최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7명의 금통위원 중 총재를 포함해 4명이 기준금리 인상 의지를 보였고 1명은 중립, 2명은 신중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절반 이상의 금통위원이 매파적 입장을 보인 셈이다.

전일 한은이 공개한 2018년 제3차 금통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7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제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 정기회의(7월 12일 개최) 의사록에 따르면 이일형 금융통화위원은 "통화정책 완화 기초를 다소 축소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기준금리를 현 1.50%에서 1.75%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금통위 이후 8개월 만에 나온 소수의견이다.

이 위원 외에도 "늦지 않은 시기에 기준

금리를 인상해 완화 정도를 현재보다 축소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힌 악명의 위원도 있었다.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앞서 고승범 금통위원도 지난달 1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기준금리를 올렸음에도 국내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는 매파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시장에서는 금통위원들의 매파 발언을 놓고 빠르면 이달 중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만약 8월에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정기회의는 2차례(10월, 11월) 남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기준금리 인상이 현실화되고 있는 배경은 이 총재가 금리 인상의 전제 조건으로 꼽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도달했거나 근접했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7월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9%로 낮췄지만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2.8~2.9%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진단했다. 또 2분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5%로 관리물가상승률(-0.8%)을 제외하면 약 2.2% 상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이 총재는 지난달 27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건실한 경제 성장

세가 이어져 경제 성장률과 물가 전망치가 한은의 목표치인 2.0%에 근접한다면 현재의 (통화정책) 완화 기초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하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 5월 "경제상황은 낙관하기 어렵다"면서 금리 인상에 유보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과 상반된다.

백운민 교보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경기모멘텀이 둔화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금리 인상을 지연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며 "최근 금통위원들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한은이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 인상 조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하는 다수의 금통위원과 매파적 성향을 고려할 때 금리 인상은 이제 시점의 문제"라면서 "아직 목표 수준을 밀도는 물가와 약화된 경기 모멘텀을 고려할 때 10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지만, 무역분쟁 진행 경과에 따라서는 8월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oouil.co.kr

정부 부동산 규제에 전국 집값 3개월째 내리막

서울 아파트값 평균 7억... 양극화 심화

서울 주택가격 5.7억·지방은 1.9억 지방 아파트값 서울의 3분의1 수준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전국 집값이 3개월째 내리막길이다. 그러나 서울은 아파트 평균가가 7억원에 달하며 '그들만의 리그'를 벌이는 모양새다. 반면 지방은 집값이 떨어져 한파 분위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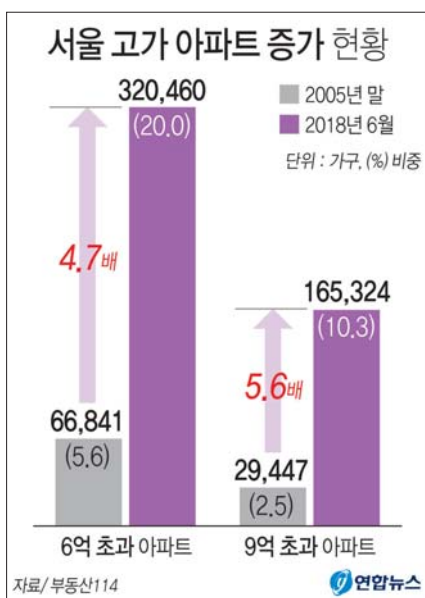
한국감정원이 1일 발표한 7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0.02% 하락, 지난달과 같은 내림폭을 보였다.

전국 집값은 지난 5월 0.03% 떨어져 57개월 만에 하락 전환한 후 석 달 연속 내리고 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신규 공급물량 증가, 금리 상승, 부동산 관련 세금 규제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은 0.23%에서 0.32%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7월 초 밝힌 여의도 개발 구상의 직접 수혜가 예상된 영등포구가 0.85% 오르며 가장 많이 상승했다.



반면 재건축 단지가 있는 강남구는 0.20%, 송파구는 0.08% 하락했다.

강북은 개발호재, 직주근접, 저평가 지역 등에서 강남지역과 겹 매우기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마포구(0.56%), 중구(0.55%), 동대문구(0.52%), 용산구(0.50%) 등을 중심으로 상승하며 지난달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됐다.

아파트 가격도 고공행진하고 있다. 지

난달 서울 주택 평균 가격은 5억7387만원, 아파트는 6억9593만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에 비하면 그들만의 리그가 열린 셈이다. 전국의 주택 가격 평균가는 2억8338만원, 아파트 평균가는 3억2014만원이다.

반면, 지방에선 한파가 불고 있다.

지방의 주택매매가격은 -0.12%에서 -0.13%로 하락 폭이 확대됐다. 울산·경남이 경기침체로 하락폭이 확대되고, 강원·충북·충남은 신규공급 증가로 하락세가 지속됐다.

지방은 평균 주택매매가격은 1억8777만원, 아파트 가격은 2억320만원에 불과하다. 아파트의 경우 서울 평균의 1/3 수준이다. 7월 전국 전셋 값은 0.21% 하락하며 두 달 연속 떨어졌다. 그러나 수도권(-0.25%→-0.18%)과 지방(-0.25%→-0.24%) 모두 하락폭이 줄었다. 서울은 0.06% 오르며 녀 달간의 하락세에 마침표를 찍었다.

감정원 관계자는 "서초구의 재건축이 주수요와 직주근접 수요가 몰리며 지난 달 서울 전셋값이 다시 올랐다"고 설명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숨은 보험금' 2조1426억 주인 찾았다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 8개월 성과

지난해 12월 문을 연 '내보험 찾아줌'을 통해 숨은 보험금 2조1426억원이 주인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해 금융당국은 가입자가 내보험 찾아줌에서 보험금을 조회한 뒤 온라인으로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내보험 찾아줌'은 지난해 12월 18일 서비스를 시작해 올해 6월 말까지 6개월여간 474만명이 이용했다.

이들은 187만 건, 2조1426억원의 보험금을 찾아갔다. 1건당 평균 115만원 수준이다. 생명보험사가 약 1조9674억원(171만 건), 손해보험사가 1752억원(16만 건)이었다.

중도보험금이 1조2947억원(142만3000건), 만기보험금 5501억원(12만3000건), 사망보험금 1189억원(1만1000건), 휴면보험금 1789억원(31만4000건)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기준 숨은 보험금 규모(약 7조4000억원)의 약 28%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해 숨은 보험금 조회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은 11월까지 개별적으로 온라인 청구 시스템을 마련하고 안정성 테스트



트를 한 뒤 12월 '내보험 찾아줌'과 연계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내보험 찾아줌'에서 숨은 보험금을 확인하고서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해당 보험회사 콜센터나 계약 유지·관리 담당 설계사 등에게 연락하는 등 따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당국은 이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보험회사가 온라인 보험금 청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한다. 내보험 찾아줌에서 숨은보험금을 조회한 뒤 각 보험사 온라인 청구 시스템으로 바로 접속하는 링크 기능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보험금 청구를 하기가 힘들거나, 유선상담 후 보험금을 청구하고 싶은 소비자를 위해서는 '콜 백' 서비스가 도입된다. 숨은 보험금 조회 후 전화번호를 남기면 해당 보험사 직원이나 담당 설계사 등이 일정 기간 이내에 직접 연락해 상담·안내한 후 보험금 청구를 도와준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北에 머물던 미군 유해 55구 미국행

한국전쟁 당시 사망해 그동안 북한땅에 머물렀던 미군 유해 55구가 한국을 거쳐 1일 고향인 미국으로 떠났다.

AP통신 등은 앞서 북한이 한국전쟁 참전 미군의 유해를 송환하면서 인식표(군번줄) 1개를 함께 보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유엔군사령부에 따르면 주한 미 7공군 사령부가 있는 오산기지 내 격납고에서 이날 열린 유해 송환식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등 한미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했다.

송환식이 끝난 후 금속관에 담긴 미군 유해 55구는 미군 대형 수송기 C-17에 실려 하와이 히카姆 공군기지로 떠났다. 히카姆 기지에선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미군 유해를 직접 맞이한다.

히카姆기지 내 미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은 DNA 검사 등을 통해 미군 유해에 대한 신원 확인 작업을 할 예정이다.

이번 미군 유해송환은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북미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것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을 맞은 지난달 27일 한국전쟁 중 북쪽에서 사망한 미군의 유해가 북한 원산 갈마비행장에서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로 송환되고 있다. 유해는 1일 송환식을 거쳐 미국 하와이로 떠났다. /연합뉴스

주금공, 주택연금 화상상담서비스 확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국민연금공단·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과 협력해 '주택연금 화상상담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주택연금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들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나 노인복지관(부산장산·동두천시·양평군·분당·군산시·부천오정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PC를 이용, 주금공 전문상담원에게 화상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금공 지사를 방문하기 어렵거나 전화 상담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소비자들께 화상상담을 통해 주택연금 제도를 보다 편리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등 지방자치단체와도 협력해 화상상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희주 기자